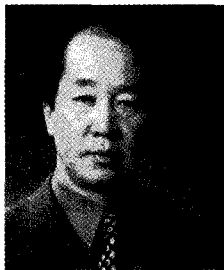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를...



이 영 재

(태경농장 대표/광주채란분회장)

대 한양계협회 제 16대 임원에 선출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올해도 시작인가 싶더니 벌써 삼월이다. 뽕뽕 얼었던 산과 들에는 어느덧 파릇파릇 봄기운이 들고 졸업과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신학기 입학금과 등록금 부담에 가득이나 저난가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양계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은 양계업이 생긴 이래 명절전 계란값 하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깨가 처지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 심히 걱정이 드는 것은 본인 한사람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작년 한해는 계란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계란을 생산하자는 품질등급제로 인해 마음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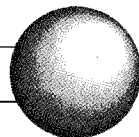
이며 일년을 보냈고, 2002년 임오년에는 작년보다는 좀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며 시작했는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종계수입이 60만수나 된다. 생산자가 생각하는 적정 종계마리수는 52~55만수인데 60만수라면 10%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종계가 10%이상 증가하면 계란가격은 30~40% 이상 하락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런 통계로 볼 때 우리 산란계 농장은 무척이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언제 우리 생산자들은 생산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수 있을런지....

우리 양계인들은 타 업종에 비해 정부의 도움을 제일 적게 받으며 우리 자력으로만 지금껏 농장을 운영해 왔다.

농림부 당국자께서는 양계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아시고 타 업종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며 대규모 기업농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소규모 전업농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회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알지만 약간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협회는 양계인의 대표 기구임을 잊지 말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 정부 로비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대단위 양계단지외 기업농의 협회 참여를 독려했으면 한다.



셋째는 기구개편, 즉 현 분회를 시(군)지부로 승격시켰으면 한다.

넷째 협회에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입원을 찾아 수입을 늘려 좀더 폭넓게 활동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국 양계농가 실태 파악이 부족한

것 같다. 통계 등 모든 정보를 얻어 양계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양계농가의 실상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신임 회장단의 취임을 다시한번 축하하고 산적한 당면문제들을 꼼꼼히 챙겨 양계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었으면 한다. **양계**



계약사육농가들의 협회 참여 필요성 높아야...



이 준 동

(사철농장 대표/본회 청주육계분회장)

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드리는 바이다. 3년이란 어쩌면 긴 시간일수도 있는데 중책을 맡으셔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보람되고 알찬 일들을 찾아 이루시고 임기가 끝난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으로 소중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계산업 발전에 기대를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육계분야의 현안 문제는 아무래도 지난해

시작한 표준 사육 계약서를 원만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 여겨진다. 지난해 이맘때쯤 시작해서 1년동안 학계나 연구소 등에서 많은 도움도 주셨고, 참여해서 초안을 작성하신 분들은 바쁘신 중에도 3일간이나 합숙을 하면서 최대한 공정한 계약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작 축산 농가들을 위해 술선해야 될 농립부나 행정기관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빠른 시일안에 공인된 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작성해 주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한가지 더 바램이 있다면 육계분과 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켜주었으면 한다. 지금처럼 회의때 시세정보와 지역별 정보교환 정도로는 일반사육 농가보다 훨씬 많은 계약사육 농가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며,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임원 여러분은 일반적인 행사에 참석하시는 비중보다 더 많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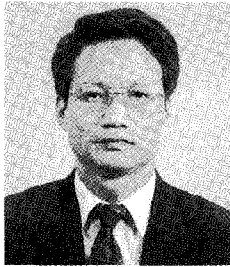


간을 농가와 상담하고 농가를 방문하셔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진일보된 협

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양계**



행(行)하지 않는 선(善)은 악(惡)의 편이다



김 태 환
(계림농장 대표)

회원이든 국민이든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쪽에 보다 더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쪽을 더 즐겨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 시대를 잘라 놓고 볼 때 그 시대를 옹변해주는 어떤 대세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들 한다. 그 대세라는 것이 반드시 옳거나 항상 형평성이 있고 민주적이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정부든 협회든 양계농가든 누구든 그 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용기있는 개인이나 조직은 그 시대에 발 맞추어 발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위기에 처해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있어서는 장차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여기서 감히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행(行)하지 않는 선(善)은 악(惡)의 편이다” 라고...

신임 회장단에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몇 가지 당부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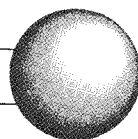
첫째, 생산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둘째, 회원과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단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무임승차자나 방관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항상 연구하는 협회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좋은 정책이나 유익한 건의안을 부단히 연구, 개발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있으면 과감히 시행하기를 바란다.

다섯째,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는 과



감히 떨쳐 나서주기를 바란다. 엄청난 양의 닭고기수입 문제, 식란수입 문제, 백세미 문제, 종계·부화업 허가제 문제, 육계사육표준계약서 문제, 사료위생 문제 등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현명한 대처로서 해결해 나가주시기를 바란다.

여섯째, 질병 방역의 문제이다. 최근 전업계가 가금티푸스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캐슬병 백신접종도 중요하지만

가금티푸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우려하는 회원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곱째, 협회 직원들에게 비전 제시가 가능한 협회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유능한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말띠해와 함께 한 임기를 잘 마치고 3년후 을유년(乙酉年) 닭띠해와 함께 시작할 차기 회장단에게 더욱 발전된 협회를 물려줄 것을 기원한다. **양계**



유기적인 관계와 긴밀한 협조 유지를...



이 규 호
(한국가금학회장)

우선 대한양계협회 제16대 임원에 피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양계산업분야의 생산자 단체로서 대한양계협회가 양계인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한 단계 더 큰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어려웠던 지난 한해를 보내고 임오년 새해

를 맞았으나, 새로 중책을 맡으신 임원님들 앞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격파동에 대비한 생산조절문제, 각종 신종 질병에 대한 방역대책, 계란등급제도를 둘러싼 갈등해소, 난가 고시제도의 개선, 자조금 제도의 입법화와 시행에 대비한 준비 등 당면한 양계분야의 문제들을 능숙한 솜씨로 해결하여 양계산업의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가금학회는 지난 30년 동안 대한양계협회와 더불어 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산학협동심포지엄, 학술발표회, 학회지발간 등 학회활동에 대한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양계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양계**